

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

2023. 10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

목 차

1. 美 ASPA, 4개국 수입 새우에 대한 관세 부여 촉구 3
2. 기후변화 문제와 아프리카를 위한 해결방안 4
3. Maersk와 Starlink 간 위성 통신 계약 체결 6
4. 바이든 행정부,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어업관리에
2천만달러 지원 7
5. 페루 대형오징어업의 FIP가 정부-기업 협업을
효과적 증명 8

- 미국 새우가공협회(American Shrimp Processors Association, ASPA)는 새우 수입에 대한 추가적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촉구하는 무역 탄원서를 제출하였음
- 미국의 야생 어획된 온수성 새우 가공에 대한 이익단체인 ASPA는 무역 탄원서를 통해 에콰도르,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냉동 온대성 새우에 대한 불공평한 덤핑과 불법 보조금, 에콰도르, 인도,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대한 상계 관세를 문제 제기하고 있음
 - 최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(USITC)는 인도, 중국, 태국 및 베트남에서 수입된 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의무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지속적인 새우 수입은 미국 국내 새우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미국의 새우 시장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대량의 새우량에 제압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 국내 새우 산업은 매우 낮은 이윤을 기록하고 있음
 - ASPA가 목표하는 4개국은 미국 시장에 가장 큰 새우 공급자들임
 - 이들은 2022년 냉동 온대성 새우 수입에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
 - 해당 국가들의 덤핑 마진(dumping margin)은 높아야하며 에콰도르의 경우 111퍼센트를 기록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
 - ASPA에 의하면 4개국의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미국에 수입할 때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일으켜 미국 국내 산업이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
 - 효과적으로 관세 의무가 부여된다면 덤핑과 국제적 보조금 문제가 상쇄될 수 있어 현재 국내 새우 산업에 필요한 구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출처: Seafoodsource¹⁾

1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american-shrimp-processors-association-push-for-duties-on-imported-shrimp-from-four-countries> (2023년 10월 26일)

- 녹색 채권은 아프리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십억불을 모으기 위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자본시장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SKEMA 비즈니스 스쿨의 은행 및 금융 전문가 Dhafer Saidane이 말했다.
-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문제의 원인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국가들임. 아프리카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3%를 기여하지만 극심한 더위, 홍수, 사이클론, 쓰나미 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음.
- 아프리카는 어렵지만 대응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: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을 장려하는 것.
- 인류가 지질학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후의 시대인 인류세는 부유한 국가들의 경우 18세기부터 시작하였음. 그러나 아프리카에게 인류세는 시작하지 않았음. 이 상황에 대해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총재 Akinwumi Adesina는 "아프리카는 탄소 제로가 아닌 제로 지점에 있다"고 말했다.
- 극심한 변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 농업생산량 30% 감소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.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은 식량 불안정에 20%만큼 기여하고 있음. 요약하자면,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, 2050년까지 아프리카의 GDP는 30% 감소할 것임.
-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십억불의 투자가 필요함.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간 1조-1.3조불이 필요하고 친환경 신농업과 신산업 개발이 필요함.

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해결책 : 녹색 채권

- 위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녹색 채권임. 이 대규모 금융은 신재생 에너지 또는 청정 운송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펀드 구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.
- 대부분의 아프리카 녹색 채권은 AfDB에 의해 발행되었고, 2013년부터 15억불 이상을 발행하였음. 나이지리아의 Access 은행은 최근 해수면 상승을 보호하고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4,100만불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음.

- 이 녹색 채권적 접근은 “일석이조” 전략이 될 수 있음. 실로, 녹색 채권과 기타 녹색 금융자산들은 기후금융을 보장하는 동시에, 진전하고 있지만 원하는 속도로 가지는 않고 있는 아프리카 자본시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.
- 현재, 녹색 채권은 세계 채권 시장의 작은 일부만 이루고 있지만, 개도국들의 녹색 경제 및 보다 공평한 경제로의 발전에 실질적인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.
- 다른 금융적 해결책들은 연기금을 통해서 가능함. 120억불로 추산되는 케냐의 연기금이 가능성이 있음. 디아스포라와 중산층으로부터의 펀드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.

■ 아프리카를 위한 해결책이 금융에 국한되어서는 안됨

- 중장기적으로, 아프리카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함. 그것은 3개의 핵심 요소들로 이루어짐.
- 지속가능한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교육 및 인증.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훈련 그리고 대학 내 특화된 석사과정 내 생태학적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이루어짐.
- 시민사회, NGO들 그리고 싱크탱크의 관여. ‘지속가능한 아프리카 금융 기구’가 현재 국제 규제들의 통일 및 조화를 위해 매우 유용할 것임. 동일하게,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결집하는 ‘국가기업 사회적 책임 위원회’가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지원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임.
-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, 은행, 기구들을 위한 영향 측정 도구들을 모색. 이 도구들은 ESG(환경, 사회, 거버넌스) 전환이, E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책임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S와 G가 고려되도록, 아프리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도구가 되어야 함.
- (저자) Dhafer Saidane (SKEMA 비즈니스 스쿨 교수)

출처: newafricanmagazine.com²⁾

2) <https://newafricanmagazine.com/29972/> (10월 15일 기사)

- 컨테이너 물류에 있어서 세계 리더인 머스크 선사는 스타링크를 개발한 스페이스X와 위성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음.
- 머스크가 운항하고 있는 33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에 스타링크가 설치되어 200Mbps가 넘는 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게 됨. 이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선원 복지와 사업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것임.
- 이 계약은 성공적인 시범단계를 거쳐 체결된 것임. 시범사업에서 30척이 넘는 머스크 선박의 선원들이 스타링크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.
- “우리는 항해하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최첨단 연결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와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. 고속 연결성은 항해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바다에 있을 때도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이는 또한 클라우드 해결책들의 확장을 진전시켜, 선박 항해를 디지털화하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.”고 머스크사 선단 관리기술 책임자 Leonardo Sonzio가 말했음.
- 매끄러운 스트리밍과 고화질 화상통화와 같은 당연한 혜택뿐만 아니라, 고속 인터넷은 사업에 필수적인 앱들을 클라우드에 저장시키고 선박에 대한 원격 지원 및 검사 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 절감 조치들을 또한 촉진시킬 것임.
- 스타링크는 자사의 최첨단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음. 스타링크의 비전은 기회가 지리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 연결된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, 전세계 공해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짐.
- “머스크의 선박들은 세계 교역에 핵심적 역할 하고 있고, 세계 최첨단 위성 인터넷을 통해 스타링크의 고속 광대역이 누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매끄러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 영업 부회장 Jonathan Hofeller는 말함.

출처: www.seafood.media³⁾

3) <https://www.seafood.media/fis/worldnews/worldnews.asp?l=e&id=126428&ndb=1> (10월 13일 기사)

4 바이든 행정부,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어업관리에 2천만달러 지원

□ 바이든 행정부,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어업관리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

-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와 NOAA*가 NOAA에 2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.
 - 어업관리업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사하는 지역어업관리위원회를 지원
 - 인플레이션 감축시행법에 의거하여 제공할 예정
- * NOAA: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(미국 해양대기관리처)
- 2천만 달러 중 3백만 달러는 8개의 지역 어업관리 위원회에 전달.
- 2천만 달러 중 1천7백만 달러는 2개의 목표를 향한 주요과제를 설립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질 예정.
 - 목표 1: 기후 회복력과 기후 영향에 대한 대응을 향상하는 어업관리측정을 발전시키기
 - 목표 2: 그 관리 측정법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결정하기
- 미국 어업관리위원회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.
 - 뉴잉글랜드 어업관리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대구나 해덕(Haddock)의 자원이 변하자, 대구나 해덕(Haddock)의 관리 전략을 이미 바꾼 적이 있다.
 - 메인의 대서양 대구 어업은 2017년 최저 기록을 갱신한 이후로, 회복되지 않고 있다.
- 빠르면 2018년부터, 기후로 인해 어류 자원이 이동함으로써, 미국의 해양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발표.
- 미국방부는 최근에 오리건 주립대 연구원에게 연구지원금을 준 적도 있다.
 - 오리건 주립대에서 기후변화가 어업권의 갈등을 어떻게 초래하는지 예측한 연구를 했었다.

※ 출처: SeafoodSource⁴⁾

4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biden-administration-announces-usd-20-million-in-funding-for-fisheries-management-addressing-climate-change> ('23년 10월 30일 검색)

□ 페루의 대형오징어 어업향상과제가 정부와 기업간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증명함.

- 직접 투자를 하기보단, FIP라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관리 및 안내를 도와줄 때, 어업에선 더 성공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.
 - FIP*는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소규모 어업자들을 지원한다.
- * FIP: Fishery Improvement Projects (어업향상프로젝트)
- 대형오징어(Jumbo flying squid) 어업은 페루에서 엔초비(Anchovy) 어업 다음으로 큰 어업이다. 대형오징어 어업에 25,000명이 넘는 선원과 4,000척이 넘는 선박이 요구되며, 500,000 파운드 (22,6796 kg)의 오징어를 매년 획득한다.
- 대형 오징어 (Jumbo flying squid)가 이동을 자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불법 원양어업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다.
 - 페루 정부가 어업 관리, 모니터링,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.
 - 어업에 있어서 국제적 관리의 부재 또한 문제를 키웠다.
- 페루 선박 말고도 칠레와 에콰도르 선박들 또한 오징어 수확을 해서, 오징어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초래했다.
- 적정 자원량을 관리하는 섬세한 갈등 조정은 페루 정부가 선박 공식 허가증을 부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증축된 배들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.
- FIP는 페루 연방국가가 혼자 적용시키길 수가 없는 페루 대형오징어 선박의 공식화에 목표를 두어, 미래에 남은 자원량을 확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- 국가 관리의 효과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, 현재 자원량은 꽤 안정적으로 남아있긴 하다.
 - 어업의 자료수집과정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목표
 - SPRFMO*와 페루 정부와 함께, 어업의 통치와 전반적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 또한 목표

* SPRFMO: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

- 자료수집으로는 페루에서 연방 감시 단체가 존재하지만, 페루 정부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FIP를 포함한 회원들은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파트너십 맺는 것을 결정.
 - 연방 감시 단체 이름은 Marine Institute of Peru (IMARPE)
- 글로벌 어업감시(Global Fishing Watch) 같은 다른 단체는 어업에서 원양 선박의 활동을 추적했는데, 615척의 오징어 원양 선박 중 95%는 중국. 나머지 5%는 타이완, 그리고 대한민국.
- 페루는 국내나 국외의 선박이 불법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.
 - 페루는 글로벌 어업감시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를 공유하는 첫 남아메리카 나라이다.
 - FIP가 포함된 다른 단체는 적절한 자료수집과 선박 공식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.
- 페루 국내와 국제 어업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시도들은 확정된 공급을 넘어선 중요한 시장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.
- FIP의 목표는 국제 해양관리협의 비영리 단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.
 - 이는 여러 국제 오징어 바이어들의 요구임.
 - 이는 정부와 주주들이 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.

※ 출처: SeafoodSource⁵⁾

5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peruvian-jumbo-squid-fishery-fip-demonstrates-effective-collaboration-between-industry-government/>(23년 10월 30일 검색)